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공립학교 성경 읽기 도입…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온두라스 국민의회가 공립 교육기관에서 성경 읽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스페인 기독매체 에반헬리코 디히탈이 5일 보도했다. 특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헌법 개정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회 의장이 4일 본회의에서 공립학교 내 성경 읽기를 장려하는 동의안을 공식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낭독된 후 심의 대상으로 채택됐고, 이를 분석·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의회 의장은 이 제안이 공식 제출 이전에 가톨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읽기 도입이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약화된 윤리적·시민적 가치와 원칙을 교육을 통해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폭력 예방과 공동체적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체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별위원회는 모든 정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교육부와 가톨릭·복음주의 교회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다. 위원회는 교육기관에서 성경 읽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평화 문화’와 상호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보고서를 30일 내 제출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77조와 제151조가 국가의 세속성을 규정하고 있어, 성경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며, 청소년들의 윤리적 혼란을 지적하고 가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학부모협회는 가치 교육의 최종 책임은 가정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학부 모들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적 내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도입 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별 학부모회와 교장, 교사협의회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의장 선출 이후 거룩한 바람이 불고 있는 온두라스를 축복하사 그 땅의 다음세대가 주의 진리로 양육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공립학교 성경 읽기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의회와 한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게 하소서. 온두라스의 다음세대를 영원한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거듭난 예수생명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10년 전보다 악화… 탈출 거의 불가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10년 전 유엔 조사 이후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민 이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돼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으며, 사실상 북한을 빠져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배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자연재해로 식량 접근성이 악화되고, 시민·정치적 권리 제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최소 7명이 구금돼 있으며, 모든 대화에서 이들의 송환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다며 제3국 망명 등 대안을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권고 일부를 수용한 점은 제한적 희망 신호라 평가하면서도, 한국 콘텐츠 접촉을 이유로 한 처벌과 공개처형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대화 과정에서도 인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사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8-10)

하나님, 10년이 지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식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그 땅을 고치시고 압제 아래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을 안전한 곳으로 송환시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니, 환난 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사 주의 건지심을 경험케 하소서.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 주의 공의가 북한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 총선 앞둔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등 종교 소수자 안전 위기 고조

방글라데시에서 2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 소수자들이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기독교 박해 감시 매체 바나바스에이드(Barnabas Aid)가 밝혔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2024년 8월 세이크 하시나 전 총리 축출 이후 협박과 표적 공격, 사회적 보이콧이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18개월 동안 기독교인과 힌두교인을 포함한 소수자 공동체는 살해, 폭행, 재산 파괴 등 산발적인 폭력에 노출돼 왔으며, 이는 과거 선거철 폭력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2025년 말에는 교회 두 곳과 기독교 학교 한 곳이 사제 폭탄 공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독교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전체의 1% 미만이며, 특히 개종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슬람 정당 자마아트에이이슬라미가 주도하는 연합의 부상 속에서, 소수자들은 선거 이후 신앙의 자유와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시편 76:8-10)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선거철 폭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방글라데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총리 축출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며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급증한 이때, 주의 공의를 방글라데시에 선포하사 극단주의자들을 잠잠케 하옵소서. 주님을 온유함으로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사람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덮어 주소서. 그리하여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는 방글라데시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구금 기독교인 177명 석방… ‘신앙 포기 각서’ 조건



에리트레아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기독교인 177명을 자의적 구금 상태에서 석방했으나, 대부분이 신앙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 종교자유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이번 석방이 실질적인 종교 자유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석방자 가운데에는 2023년 4월 예배 음악을 유튜브에 게시하기 위해 녹음하다 체포된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조건부 석방은 11월 18일 케렌의 한 교도소에서 남성 16명과 여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나며 시작됐다. 이후 12월 3일 남성 10명과 여성 16명, 12월 11일에는 순복음교회 소속 36명, 12월 12일에는 17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약 3년, 다수는 수도 아스마라 인근의 마이 세르와 교도소에 최대 5년 가까이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소는 컨테이너를 감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석방을 위해 수감자들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교단에 참여한 것이 범죄였음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향후 신앙 활동 재개 시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조건에도 동의해야 했다. 에리트레아는 2002년 가톨릭, 복음주의 루터교, 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를 불법화한 이후, 미인가 교단 신자들에 대한 체포와 무기한 구금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억압은 공인 종교에도 확산되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수니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종교 시설 폐쇄에 항의하거나 당국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도 보고됐다. 종교인들은 전국 300곳 이상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만 명의 양심수 가운데 일부로, 열악한 식량과 의료 환경, 상시적 고문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며, 이중국적자 치함 알리는 15세에 비공개 구금된 지 13년이 지났다.

일부는 이번 석방을 정기적인 ‘수감자 공간 비우기’로 해석하지만, 다른 관측통들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CSW는 조건부 석방을 비판하며, 적법 절차 없이 장기 구금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시편 35:24-25)

하나님, 에리트레아 정부가 구금 중이던 기독교인 177명을 신앙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는 소식 앞에 주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법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고 말하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주의 공의의 빛을 비주사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소서. 또한 석방된 기독교인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마침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선교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전 국제종교자유대사 “중국, 전 세계적으로 종교 탄압 수출”

샘 브라운백 전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달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프리카 및 서반구 소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중국이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종교 탄압과 감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종교 자유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이라며, 신앙 공동체가 전체주의적 연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자국 내 종교를 억압하는 동시에 정교한 감시 기술을 다른 독재 정권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중국·러시아·터키·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5월 출간될 저서에서 중국의 ‘신앙에 대한 전쟁’을 다룰 예정이라며, 종교 자유를 글로벌 안보의 방패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시편 36:10-12)

하나님,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여 종교 탄압과 감시 기술을 다른 독재 정권에게 수출하여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삼는 중국 정권을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무너뜨려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교만함 배후에 있는 사탄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주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를 의지하여 복음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부흥케 되는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대규모 단속… 2,000여 명 체포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으로 2,000여 명을 체포했으며, 검거 인원 중 중국 국적자가 약 1,8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최근 현지매체 크메르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달 31일 남동부 도시 바벳에 있는 스캠 단지를 급습해 총 2,044명을 검거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인 179명, 베트남인 177명, 대만인 5명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범죄 단지는 총 22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카지노로 위장해 운영돼 왔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작전이 최근 진행된 스캠 관련 단속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온라인 사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린도전서 6:10-11)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운영돼 온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으로 검거된 범죄자들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옵소서. 이익을 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을 깨닫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법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서서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기독교 고아 사망… 정부 구금·종교 강요 의혹 속 비극



나이지리아 카노주 정부에 의해 장기간 구금돼 있던 기독교 고아 다윗 타르파(13)가 정부 운영 고아원에서 사망했다고 국제기독연대(ICC)가 최근 밝혔다. 이번 사망은 2019년 크리스마스에 두 메르시(Du Merci) 고아원에서 강제로 분리된 기독교 아동 27명 사건 이후 처음 발생한 사망 사례다.

인권변호사 엠마누엘 오게베에 따르면, 타르파는 약 일주일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카노의 나사라와 고아원에서 숨졌다. 그의 시신은 학교에서 돌아온 형제자매들이 발견했다.

타르파는 카노 및 카두나 지역의 두 메르시 고아원에서 자라던 아이들 중 한 명으로, 2019년 12월 25일 카노주 당국에 의해 무슬림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아이들은 이슬람식 이름으로 개명되고 이슬람 종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영어 사용이 어려워질 정도로 장기간 하우사어와 꾸란 암송 교육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르파 역시 ‘다우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025년 3월, 카노주는 남아 있던 아이들을 원래의 기독교 보호자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하는 법원 승인 동의 판결에 합의했으나, 예정된 인계는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여성·아동·장애인부 관계자들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도를 거부했으며, 현장에 있던 미국 기반 인도주의 감시단은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복지 문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에는 고아 모세가 화재로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했으며, 의료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에는 병든 아이 두 명이 사립병원에 방치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은 석방됐지만, 다윗의 사망 전까지 8명이 주정부 구금 상태였으며 현재도 7명이 남아 있다.

국제기독연대(ICC)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망이 국가 보호 아래 있던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방치와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독립적 조사와 남은 아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간한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시편 68:5-6)

하나님, 기독교 고아를 구금하고 사망하도록 방치한 나이지리아를 주님께 고발하며 기도합니다. 고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카노주 정부의 모든 악한 시도가 멈추어지게 하소서. 여전히 장기 구금되어 그들을 양육 하던 기독교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속히 석방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이지리아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재판장이시며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미 연구 “낙태 경험 여성 약 45%, 수십 년 지나도 정서적 고통”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국제학술지 국제 여성 보건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 약 45%가 시술 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중등도에서 중증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는 41-45세 미국 여성 226명을 전국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했으며, 낙태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의 경험을 반영한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장기적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약 24.1%는 지속적인 슬픔과 비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기억, 직장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혼란을 보고했다. 연구진은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0만 명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도 임신 상실의 원인이 낙태이든 자연적 요인이든 장기적 비탄이 흔했으며, 특히 원치 않거나 강요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정서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낙태 전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2:19)

하나님, 낙태를 경험한 미국의 여성 중 많은 이들이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앞에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을 살해하여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스스로 얻게 된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복음의 빛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 된 우리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를 경외하는 심령을 회복하사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소서.

▲ 이란, 2024년 기독교인에 징역형 263년 선고… 전년 대비 6배 급증

2024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의 총합이 263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2명이 총 43.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티클18과 오픈도어, 세계기독연대(CSW), 미들이스트 컨선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 96명의 기독교인이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는 10년형과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증가가 단순한 사건 누적을 넘어 기독교 신앙 자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구조적 박해 강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경과 예배, 찬양, 현금 등 일반적인 종교 행위가 범죄로 취급됐으며, 재산 몰수와 재정 단속도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법과 사법 제도를 이용해 기독교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43:2)

하나님,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이란 당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을 다스려주십시오. 법과 사법 제도를 이용해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란 정부를 판단하시고 그 배후의 사단을 꾸짖어 주옵소서. 예배를 포함한 일반적 종교 행위조차 범죄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 땅의 교회를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로 불의한 자들에게 변호하시고 결국에는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붙드시는 주의 영광을 이란의 모든 이가 보게 하옵소서.